

물량난에 서울 전세값 고공행진



▲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아파트로 빼곡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1년 전만 해도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지만, 이제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 서 전세난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신문'이 부동산R114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푸르지오 아파트 41평형(137㎡) 전세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 4375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3월 9억원으로 1년새 전세가격이 2억 5000만원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 공급 부족과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자금도 전세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공급 물량도 적어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4139가구로, 전년(3만 610가구)보다 21% 줄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로 나오는 공급 물량 자체가 줄었고, 월세 급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전세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값'된 국민 반찬 김... 해외 수요 급증 탓

세계적으로 한국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수 가격 폭등했다.

7일 '동아일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이날 발표한 5월 양식 증보고서를 인용해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당 1만8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603원)보다 80.1%나 비싸졌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채래김(101.3%), 파래김(93.8%), 돌김(60.9%) 등 마른김 도매가격도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김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이유는 수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한국의 김 수출액은



▲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김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억9100만 달러로 한화 환산 1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 규모는 올해 들어 더욱 늘고 있다. 이날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 수출액은 1억 3171만 달러로 지난해 1~3월(1억 1073만 달러)보다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생산량은 1만2737속에서 1만3425속으로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출량 증가는 김 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산업관측

센터가 추정한 지난달 김 재고량은 4900만 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6400만속)보다 25% 줄었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며 2022년 한 속당 5000원을 밑돌던 김밥용 김 도매가격이 지난해 2월 5000원을 돌파했고 같은 해 9월 6000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1월 6649원에서 3월 9893원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10년 전보다 키 커지고 몸무게 증가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이 10년 전에 비해 더 커졌다.

2일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한국의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 치수조사 사업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체치수조사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년 전인 2013년보다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키는 초등학교의 경우 4.3cm(남)·2.8cm(여), 중학생 7.4cm(남)·3.3cm(여), 고등학교 2.2cm(남)·1.9cm(여)가 커졌다.

남자 초등학교생의 평균 키는 139.2cm였으며 중학생은 165.3cm, 고등학교생은 173.2였다. 여자 초등학교생의 평균 키는 137.1cm, 중학생은 158.4, 고등학교생은 161.7cm로 나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의 성장 고점기는 16세에서 14세, 여자의 경우 15세에서 13세로 2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몸무게도 10년 사이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 3.0kg(남)·1.1kg(여), 중학교 연령(12~14세) 5.1kg(남)·1.3kg(여), 고등학교 연령(15~17세) 4.4kg(남)·2.8kg(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는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20.7에서 21.4, 여자는 19.8에서 20.0로 높아졌다.

진종욱 표준원 원장은 "인체데이터가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